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⑮

냄새의 호오는 제육의식 분별의 모습

云何名聞香中修觀 應作是念 我今聞香 虛無實 所以者何 根塵合故 而生鼻識 次生意識 強取香相 因此則有 一切煩惱善惡 等法 故名聞香 反觀聞香之心 不見相貌 當知聞香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무엇을 냄새를 맡는 가운데서 관 수행을 닦는 것이라고 하는가.

마땅히 '내가 지금 맡는 냄새는 허깨비와 같고 속임수여서 실재가 없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근과 향진이 화합하여 비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시에 제육의식이 일어나 향기의 모습을 억지로 취한다. 이로 인해 일체 번뇌 선악 등의 법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냄새를 맡음이라고 말한다. 냄새를 맡는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그 실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알아야 할 것은 냄새를 맡는 것과 일체법은 끝내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관 수행을 닦는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를 좀더 상세하게 서술해 보겠다. 냄새를 맡아 관찰해보면 그것은 실재가 없는 허깨비와 같다. 그 이유는 비근과 향진이 화합하여 비식과 동시에 일어나야만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향진을 훌륭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선법을 이룰 수 있다. 그 예를 하나 든다면 전상에 있는 항적세계에서는 향기로운 밥을 먹으면서 불사를 이루는데, 그것을 향광장엄(香光莊嚴)이라고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향진을 훌륭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향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고 업을 지어 삼계생사로 끝없이 유전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제육의식이 분별하기 때문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분별은 식심 때문에 일어나고 식심은 비근과 향

진이 화합하여 일어난다. 만일 비근과 향진이 인연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비식은 일어나지 않으며 비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육의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에 대한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다면 일체 선악 등의 법도 따라서 없게 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비근과 향진이 인연으로 화합하면 허망하게 분별이 일어나고 화합된 인연이 분리되면 허망한 냄새라는 명칭도 소멸한다는 점이다.

생멸을 허망이라고 말하고 허망이 소멸한 자리를 진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돌이켜

是名修止 云何名舌受味時修觀 應作是念 今所受味 實不可得 所以者何 內外六味 性無分別 因內舌根和合 則舌識生 次生意識 強取味相 因此則有 一切煩惱善惡等法 反觀味之識 不見相貌 當知受味者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及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네 번째로 설근이 미진을 받아들일 때 지 수행을 닦는 것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설근이 맛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은 꿈과 허깨비 속에서 맛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만일 내 감정에 순응하는 아름다운 맛을

맛의 모습을 억지로 취하기 때문에 일체 번뇌 선악 등의 법이 있게 된다.

미진과 설근이 화합하여 일어난 설식을 돌이켜 관찰해보면 실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맛을 보는 것과 일체법은 끝내 공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두고 관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싱거운 등의 맛에서 모두 지관 수행이 가능하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단 한 알의 씹알도 먹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음이 맛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설근은 미진과 인연으로 화합하여 설식이 일어나며 설식은 설근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설근은 설식으로 인해서 맛을 보게 된다. 따라서 맛을 보는 주체를 설식이라고 한다.

설식이 일어나면 설근과 동시에 일어나는 제육의식이 그 맛에 대한 좋고 나쁨을 분별한다. 설근은 맛을 분별하는 주체이고 미진은 분별의 대상이다. 이와 같이 설근과 미진이 인연으로 화합하기 때문에 설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체로 설식은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서 일곱 가지 조건이 화합해야만 일어나며, 안식은 아홉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식은 여덟 가지 조건만 갖추어도 일어난다.

그 이유는 해와 달의 광명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맛을 볼 수 있으며 결립 없이 특 트인 공간이 없다 해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설식은 아홉 가지 인연 가운데서 공간의 인연과 광명의 인연을 떠나서 그 나머지 일곱 가지 인연만 화합해도 일어난다. **■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nia.com/community/song

냄새는 내 외 중간 그 어느 곳에도 방향과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관찰해보면 냄새를 맡는 마음의 실체가 끝내 어느 곳에 있겠는가.

이 마음의 실체는 내적으로 비근에 있지도 않고, 외적으로 향진에 있지도 않고, 그 중간의 비식에도 있지도 않아 방향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냄새를 맡는 마음과 냄새는 그 본질이 공적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고 상대적인 의존관계마저 단절하여 끝내 공적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을 관 수행이라고 한다.

四舌受味時修止者 隨所受味 即知如夢 幻中得味 若得順情美味 不起貪著 違情惡味 不起嗔心 非違非順之味 不起分別意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충청지사	043)732-5560
경남 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 서부지사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국	054)634-3429
경남 남부지사	055)746-9778

宗團名稱 變更 公告

- 舊名 : 한국 선불교 삼매종
- 新名 : 大韓 禪佛敎 曹溪宗

금번 중회의원 정기총회에서 宗團名을 변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고, 이에公告如下.

변경일시 : 서기 2008년 8월 10일
총 본 사 : 055)673-3474

大韓 禪佛敎 曹溪宗 總本山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216번지 영락사

혜수선재



수신재 역음 · 문화영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성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수신재 역음 · 356쪽 · 값 12,000원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